



북한 안의 독재와 고립에 대한 반응 A response to tyranny and isolation in North Korea

캐서린 스테펜(Katherine Stephen)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2012년 5월 24일

서방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상에서 북한보다 더 고립되고 군국주의적인 불가사의한 나라는 없을 것이다.

무력시위로 여겨지는 거동으로 인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북한은, 그 국경에서부터 이제까지 했던 어떤 시도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로 사용될 수 있는 로켓의 시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로켓의 시험 발사 시도로 인해 근래에 들어 뉴스의 머리기사에 등장하였다. 비록 로켓 발사는 실패하였지만, 북한은 다시 한 번, 국가들이 서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하여 관계를 맺는 평화로운 세상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우려거리가 되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세계 정세에서 취하는 듯한 우려스러운 역할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비록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고립의 벽이 높고 뚫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리**의 목소리가 들릴 수 없는 곳은 지상 어느 곳에도 없다는 사실이 나에게 희망을 준다. 성경은 예언자 엘리야가 그가 억압을 받고 있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미세한 음성”을 들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립되고 외진 장소에 있던 엘리야에게 이르렀다. 이 음성은 극적인 강풍, 지진, 그리고 불에 이어 은밀하고 조용한 방법으로 그에게 왔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라.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불 후에 미세한 음성이 있는지라.”(열왕기상 19:11-12)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발견자요 창시자인 메리 베이커 에디는, “과학적 사고의 ‘미세한 음성’은 대륙과 대양을 건너 지구의 가장 멀리 떨어진 변경에까지 미친다.”(*과학과 건강 부 성서의 열쇠*, 559 쪽)고 썼다. 기도의 권능은 수도인 평양의 거대하고 음산한 공간과 북한 수용소의 숨겨진 구석에서도, 북한의 보통 가정에서도 느껴질 수 있다.

비록 서방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 잡힌 견해를 접하기란 어렵지만, 바바라 데믹이 쓴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음: 북한에서의 평상적인 삶”과 같은 책들이 국가 독재가 지배하는 곳에서의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북한을 위한 나의 기도는 독재에 대한 치유를 위한 기도와 독재적 정권, 억압, 그리고 세계로부터의 고립 안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 외에도 식량 부족과 싸워야만 하는 그 나라의 보통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기도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을,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진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에, 나는 어느 곳이라도 억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신성의 도움이 반드시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납득한다. *과학과 건강*에서 에디 여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개인의 권리를

For this translation in English and other translations in Korean, please see

<http://translations.christianscience.com/translations/list/lang/Korean>

Translation © 2012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A.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A website.

강조하였다. 그녀는 “사람이 가진 권리를 인식할 때, 우리는 모든 억압의 최후를 예견하지 않을 수 없다.”(227 쪽)고 썼다. 에디가 최후를 맞을 것으로 묘사한 것은 개인들이 아니라 억압 자체라는 것에 주목하라. 진정한 정부는 하나님 정부의 반영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의롭고 현명한 정부가 결여되어 있는 곳 어디에서든 그것이 전개되고 부상하는 것을 볼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이 감지하고 있는 서방세계의 지배와 통치에 관한 동기에 대해 북한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성적이든 비이성적이든 두려움을 이해하기 위하여 서방세계는 자신의 몫을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위한 나의 기도는 그 나라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현명하고 평화로운 행동을 위한 기도, 북한을 하나된 세계 가족의 일원으로 보는 기도를 또한 포함하고 있다. 에디는 “유일한 아버지, 곧 하나님과 더불어 인류의 온 가족이 형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유일한 마음, 그 하나님, 즉 선과 더불어 인류의 형제관계는 사랑과 진리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신성의 과학을 구성하는, 원리와 영적 권능의 일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과학과 건강*, 469-470 쪽)고 썼다.

2011년 12월 북한 지도자 김정일의 사후 이루어진 지도층의 최근의 변화는 새로운 통치 방향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 세계는 그의 아들인 김정은이 자신의 아버지를 우상화하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통치권을 취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예컨대 최근 들어 더 많은 수의 서방세계 언론인들의 방문이 허용된 것과 같은 몇 가지의 희미하나마 진보의 빛이 이미 보이고 있다.

북한 시민들은 그 나라의 군대 열병식과 획일적으로 통제된 군중 시위에서 보여주는 엄숙한 얼굴보다 더 많은 것을 세상에 제공할 수 있다. 성경에서 선언된 하나님 정부의 발전에 대한 진리가 예컨대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서처럼 현실화 될 수 있다. 성경이 주는 다음과 같은 약속 안에 희망이 있다: “주께서 국가들 사이를 중재하시고 국제 분쟁을 진정시키실 것이다. 그들은 자기 칼들을 두들겨 보습을 만들고 자기 창들을 두들겨 낫을 만들 것이다. 국가가 국가를 대적하여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것이요,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다.”(이사야 2:4, New Living Translation)